

부 고

루이즈 마리아 수녀 (SISTER LUISE MARIA)

루이즈 오펜 (Luise OTTEN) ND 4295



독일, 코스펠드 여왕이신 마리아 관구

출 생 :	1926 년 10 월 24 일	메펜주 헬트
서 원 :	1953 년 4 월 14 일	코스펠드 립프라우엔부르
사 망 :	2014 년 7 월 22 일	훼히타 살루스
장 례 :	2014 년 7 월 29 일	훼히타 수녀원 묘지

„오 주님, 당신께서는 저의 모든 길이 익숙합니다.” 시편 139:3

이 시편 구절은 루이즈 마리아 수녀의 삶의 모토였다. 수녀는 하느님께서 동반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.

루이즈 마리아 수녀는 안나와 하인리히 오펜의 막내였으며 여덟 명의 오빠들과 세 명의 언니들이 있는 대가족의 일원이었다. 오빠 헤르만은 오스나브룩 교구의 사제였다. 모든 형제 자매가 수녀를 앞서 세상을 떠났지만 수녀는 삶의 마지막까지 조카들과 그 가족들과 가까이 지냈다.

학교를 졸업한 후 루이즈는 19 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농장에서 일했고, 그 후 가정 관리를 배우기 위해 1 년 간 노틀담 수녀들이 있는 메펜에 가 있었다. 노틀담 수녀로서의 성소를 인식하게 된 것은 그곳에서였다.

1951 년 4 월 3 일, 수녀는 아렌에서 착복을 하고 마리아 하임라데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– 나중에 세례명으로 돌아가 루이즈 마리아 수녀라고 불리게 된다.

파더본에서 가정 경제 교육을 마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다음에는 반거루게 섬의 하우스 메레스테른과 클로펜부르의 성 빈센츠하우스에서 수녀들과 아이들의 복지를 책임지게 되었다. 수녀는 20 여년간 수녀회의 많은 공동체에서 주방을 담당했다.

1989 년부터는 반거루게 섬에 있는 성 빌하드 본당의 제의방을 맡았는데 수녀에게는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했던 시간이었어서 이 무렵에 대한 이야기, 특히 서로 존중하며 협력했던 일에 대하여 몹시 즐겨 이야기하곤 했다. 루이즈 수녀는 휴가 중에 있는 각 사제와 다양한 사목 팀의 바람과 요구를 충족시켜줄 줄 알았다. 어떤 노력도 수녀에게는 그리 대단한 것이 되지 못했다. 예를 들어 꼬마들이 복사를 서고 싶어했는데 그에 맞는 작은 복사복이 없으면 수녀는 바로 몇 벌을 바느질해 내곤 했다.

이 시기에 있었던 특별한 일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였는데 수녀는 이 때의 기억을 커다란 기쁨으로 간직하고 있었다.

2000 년에는 유방암을 앓았지만 긴 치료 후 자신이 사랑하던 섬으로 돌아가 2007 년까지 사도직을 계속할 수 있었다. 그리고 나서 수녀는 은퇴하여 훼히타의 마리엔하인 수녀원으로 옮겨오게 되었다.

마지막 해에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때문에 연말에 얼마나 병원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. 2014 년 2 월, 루이즈 수녀는 살루스로 왔고 3 주 전 또 한번의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건강 상태를 개선할 수는 없었다.

2014 년 7 월 22 일 이른 아침, 수녀는 지상에서의 삶을 마감했다. 수녀의 일생 동안 동반해 주신 우리 좋으신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수녀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을 향한 마지막 여정을 떠났다.